

# 대일무역 불균형과 정책과제

홍 승 기

## Trade Imbalance between Korea and Japan and Policy Suggestions

Seung-Gee Hong



●홍승기(동국대 무역학과)  
●1954년생  
●국제경제학을 전공하였으며, 개방경제 거시이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 1. 머리말

**최** 근들어 우리나라의 대일무역적자폭이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1986년에 54억 달러의 적자를 나타낸 대일무역수지는 '87, '88년 기간중에 적자폭이 개선되는 기미를 보이다가 '89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반전하여 '94년에는 119억 달러의 기록적인 규모의 적자를 나타내었다.<sup>(1)</sup>

이와 같은 대일무역역조는 우리 상품의 가격 및 비가격경쟁력의 약화에 따른 수출증가세의 둔화와 대일수입 유발형 산업구조에서 나타나는 지속적인 수입증가 때문이며, 여기에 '90년대 이후 내수증가로 인해 새로운 수입수요가 창출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근의 대일무역역조는 좀처럼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양국간 산업구조 및 무역구조상의 문제들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 만큼 그 해결책도 근본적인 구조조

정에서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당사국인 일본과 한국은 이와 같은 양국간 무역불균형에 대해 상반된 시각을 갖고 있는 만큼 양국간 상호협력을 통한 무역역조 해결은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 우선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가공무역적, 대일수입유발적 산업구조는 일본의 영향 때문에 왜곡된 것이므로 그로부터 파생된 무역불균형은 정상적인 것일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따라서 양국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일본정부가 대한 기술이전 및 직접투자 등에 대해 배려를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측에서는, 양국간 무역불균형은 양국간 산업의 불균형에서 파생된 것이며 한국은 일본자본재로 수출증가를 이루었으므로 대일무역역조는 한국경제에 기여요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한·일간 무역불균형을 단순 경제논리로 해결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sup>(2)</sup>

이렇듯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동안 '95년 초부터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엔

화절상으로 인해 오히려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역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역조의 현황과 구조분석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2. 대일 무역역조 현황<sup>(3~5)</sup>

### 2.1 대일 무역적자 추이

1965년 일본과의 국교정상화 이후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수지 적자는 총 943억 달러에 달해 같은 기간중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적자 규모인 464억 달러를 크게 상회하였다. 표 1에 예시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수지는 '60년대 후반부터 계속 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하였던 '80년대 후반에도 대일무역수지만은 적자를 기록하였다.

더욱이 '90년대 들어 대일 무역수지적자는 '91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전체 무역수지 규모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최근들어 적자폭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 2.2 대일 수출입 증가율 동향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증가율은 표 2에 예시된 바와 같이 1990년 이래 계속 감소세를 나타내었다가 1994년 들어 증가세로 반전되었다.

한편 대일 수입은 1990년대 초반에 급증세

를 보이다가 '92년에 일시 감소로 반전된 후 '93년 이후에는 다시 급격한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대일 수출입 증가율 동향을 통해 우리는 대일 무역수지 악화가 1990~1993년 기간중에는 수출부진에 그 원인이 있었으며, 1994년에는 수입폭중에 그 원인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2.3 대일 수입 및 수출 비중의 변화

1990년 이후 우리나라의 총수출 가운데 대일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감소되고 있는 반면, 총수입에서 대일 수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우리나라의 수입선 다변화 노력에 따라 한 때 감소했다가 1992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 표 3에 예시된 바와 같이 90년대 이후에도 수입의 대일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대일 무역적자의 구조적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 2.4 주요 품목별 대일 수출·입 동향

주요 품목별 대일 수출 동향을 살펴 보면, 표 4에 예시된 바와 같이 중화학공업제품의 비중은 1992년을 고비로 증가하는 반면 경공업 제품의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특히 섬유제품의 대일 수출비중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는 '90년대 이후 일본에서 섬유제품의 수입수요가 감소한 데다 중국 및 아세안 국가들의 저가제품 공세, 일본소비자들의 기호를 충족시키는 제품의 고급화

표 1 대일 무역적자 추이 (1965~1994)

(억 달러)

	'65~'69	'70~'79	'80~'89	'90	'91	'92	'93	'94	'65~94
전체무역수지(X)	-36.4	-183.4	31.4	-48.3	-96.5	-51.4	-15.6	-63.4	-463.6
대일무역수지(Y)	-18.5	-144.9	-350.8	-59.4	-87.6	-78.6	-84.5	-118.7	-943.0
Y/X(%)	50.8	79.0	-1,117.2	123.0	90.8	152.9	541.7	187.2	203.4

자료 : 한국은행 조사 제1부, 1992, '최근의 대일 무역적자 확대요인과 향후과제.'

한국은행, 1995. 3, "국제수지."

표 2 대일 수출입증가율동향 (1990~1994)

	1990	1991	1992	1993	1994
대일수출증가율	-6.1	-2.2	-6.1	-0.3	16.9
총 수출증가율	4.2	10.5	6.6	7.3	16.8
대일수입증가율	6.3	13.7	-7.9	2.9	26.9
총 수입증가율	13.6	16.7	0.3	2.5	22.1

(전년대비, %)

자료: 한국은행, 1995, 3, "국제수지".

부진 등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요 품목별 대일 수입품을 살펴보면, 표 5에 예시된 바와 같이 수출용 수입은 대체로 감소추세인데 반해 내수용 수입은 증가하고 있어 대일무역적자 확대에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자본재수입의 비중은 1990년 이후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기계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27%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전기·전자제품은 1992년 이후 공장 및 사무자동화 관련 산업용 전자제품의 수입이 확대되어 이에 따라 수입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요컨대 품목별 수출입 비중으로 보면 기계류, 공업용 원료 및 연료, 전기·전자제품 등은 수출비중이 낮는데 반해 수입비중은 매우 높아 대일 무역적자를 발생시키는 주요품

표 3 대일 수입 및 수출비중 (1990~1994)

	1990	1991	1992	1993	1994
대일수입/총수입	26.6	25.9	23.8	23.9	24.8
대일수출/총수출	19.4	17.2	15.1	14.1	14.1

(단위: %)

자료: 한국은행, 1995, 3, "국제수지".

목으로 꼽히고 있다.

### 2.5 대일무역적자의 확대요인

'90년대 들어 대일 수출이 부진했던 이유는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가격 및 비가격 경쟁력의 약화뿐만 아니라 양국의 제반 경제환경에도 그 원인이 있었다. 수출부진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90년대 들어 제조원가의 상승과 과중한 금융비용 등으로 수출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그에 따라 우리상품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었다. 여기에 인력난, 근로의욕 감퇴 등으로 불량률이 증가하는 등 비가격경쟁력도 약화되어 수출이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 일본으로부터의 기술이전도 부매량효과를 우려하여 대기업에게는 기술이전 자체를 기피하는데다가 중소기업은 경영기반이 취약하고 기초 기술수준이 낮아 기술이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셋째, 일본기업이 높은 기술수준 및 상

표 4 주요품목별 대일 수출의 구성비 (1990~1994)

(억 달러)

	1990	1991	1992	1993	1994
식료 및 직접소비재	11.8	12.3	13.7	13.5	12.6
원료 및 연료	6.7	7.5	7.7	5.9	5.2
경공업 제품 (섬유제품)	38.7 (22.8)	38.1 (23.2)	37.8 (23.1)	35.7 (21.0)	32.1 (19.1)
중화학공업제품 (기계류)	42.8 (5.9)	42.0 (6.3)	40.9 (5.3)	44.9 (5.2)	50.0 (5.7)
(전자제품)	(13.0)	(9.2)	(9.7)	(12.5)	(16.2)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은행, 1995, 3, "국제수지".

표 5 주요품목별 대일 수입의 구성비 (1990~1994) (%)

	1990	1991	1992	1993	1994
수출용	40.3	35.6	37.8	37.0	34.8
수입용	59.7	64.4	62.2	63.0	65.2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 및 소비재	6.8	6.8	7.0	7.2	6.2
공업용원료·연료	35.2	34.4	34.8	33.4	32.1
자본재	58.0	58.8	58.2	59.4	61.7
(기계류)	(26.7)	(29.0)	(27.2)	(25.7)	(27.2)
(전기전자)	(23.2)	(20.7)	(21.6)	(23.1)	(23.6)
(기타)	(8.1)	(9.1)	(9.4)	(10.6)	(10.9)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은행, 1995. 3, "국제수지."

품개발력을 활용하여 양질의 상품을 낮은 가격에 공급하고 있으므로 브랜드 이미지가 약한 우리나라 상품의 수출확대에 애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일본내 유통구조의 배타성과 다단계 구조로 말미암아 우리상품의 침투가 어려운데다 우리측에 불리한 일본내 관세구조 및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수출증가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네째, 1991년을 고비로 일본경제가 경기조정국면을 맞게 됨에 따라 소비재 수입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에 덧붙여 중국 및 아세안 등 후발개발도상국들이 낮은 가격의 상품으로 일본시장에 침투하여 우리 상품의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

한편 대일 수입이 급증하는 주요인은 첫째, 부품이나 소재산업이 취약하여 우리의 생산 및 수출증대는 기계류, 부품, 소재의 대일 수입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1987년부터 기계류, 부품, 소재의 국산화 5개년 사업에 따라 '93년 말까지 49.8%의 국산개발완료율을 보여주고 있지만 주요 핵심부품의 대일 수입 의존은 여전하고 자금지원 및 관리체계의 미흡 등으로 국산화 추진의 효율성이 저하되었다. 둘째, 일본상품은 미국 및 유럽연합국가

들의 상품에 비해 품질경쟁력이 탁월하여 수입선 전환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셋째, 1990년대 들어 수입이 증가한 것은 국내 제조업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 확대에 따라 내수용 기계류 수입이 급증하였기 때문이었다.

### 3. 대일 무역구조의 분석

#### 3.1 대일 무역수지와 교역조건

무역수지적자 증가의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어 교역조건의 변동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수출입단가지수와 수출입물량지수의 변동은 무역적자의 변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절에서는 대일 무역수지적자 증대의 요인을 단가요인과 물량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기로 한다.<sup>(6,7)</sup>

$$\text{단가요인} : X\{1 - [1/(1 + P_x)]\} - M\{1 - [1/(1 + P_m)]\} \quad (1)$$

물량요인 : 무역수지변동분 - 단가요인 (2)  
 여기서, X는 당해년도 수출액, M은 당해년도 수입액, P<sub>x</sub>는 전년 대비 수출단가지수 변동률, P<sub>m</sub>은 전년 대비 수입단가지수 변동률을 나타낸다.

표 6 대일 무역적자 변동요인

(백만 달러)

	대일 무역수지	증감액	단가요인	물량요인
1990	-5,936.0	-	-	-
1991	-8,764.5	-2,828.5	73.7	-2,902.2
1992	-7,858.2	906.3	-306.4	1,212.7
1993	-8,451.1	-592.9	-272.0	-320.9
1994	-11,867.1	-3,416.0	49.7	-3,515.7
1990~1994	-	-5,931.1	-405.0	-5,526.1

위의 식 (1)과 (2)를 통해 대일 무역적자의 변동요인을 측정해 본 결과는 표 6에 예시된 바와 같다.

1990~1994년 기간중 대일무역수지 적자는 59억 3천만 달러 확대되었다. 이는 단가요인에 의해 4억 1천만 원, 물량요인에 의해 55억 3천만 원 악화되는데 기인한다. 따라서 대일 무역적자는 수출입단가지수의 변동보다는 구조적요인에 의한 물량지수의 영향을 강력히 받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3.2 생산유발효과와 수입유발효과

대일 무역적자의 구조적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절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산업연관표를 연결시킨 국제연관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양국산업구조의 의존관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8~14)

분석을 위해 1987년과 1990년의 한국과 일본의 산업연관표를 가지고 산업부문을 18개 부분으로 재분류하였다. 이제 한국과 일본의 연결산업연관표에서 산업간투입액의 매트릭스를  $X$ 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X = \begin{bmatrix} X^{KK} & X^{KJ} \\ \dots & \dots \\ X^{JK} & X^{JJ} \end{bmatrix} \quad (3)$$

여기서,  $X^{KK}$ 는 한국의 산업연관표,  $X^{JJ}$ 는 일본의 산업연관표,  $X^{KJ}$ 는 한국에서 일본으로의 수출,  $X^{JK}$ 는 일본에서 한국으로의 수출을 나타낸다.

또한  $X$  매트릭스의 각 원소를 각산업의 총투입액으로 나누어 구한 투입계수로 만들어지는 매트릭스를  $A$ 라고 하자.

$$A = \begin{bmatrix} A^{KK} & X^{KJ} \\ \dots & \dots \\ A^{JK} & A^{JJ} \end{bmatrix} \quad (4)$$

3.2.1 생산유발효과

식 (4)의 행렬  $A$ 의 레온티에프 역행렬인  $[I-A]^{-1}$ 을 구하여 이를  $L$ 이라고 하자.

$$L = \begin{bmatrix} L^{KK} & L^{KJ} \\ \dots & \dots \\ L^{JK} & L^{JJ} \end{bmatrix} \quad (5)$$

이제 한국의 생산유발효과( $P^K$ )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P^K = [I \ O] \begin{bmatrix} L^{KK} & L^{KJ} \\ \dots & \dots \\ L^{JK} & L^{JJ} \end{bmatrix} \begin{bmatrix} F^K \\ \dots \\ F^J \end{bmatrix} \quad (6)$$

여기서,  $[I \ O]$ 는  $n \times 2n$ 의 단위행렬과 영행렬의 조합,  $F^K$ 는 한국의 최종수요의 변화,  $F^J$ 는 일본의 최종수요의 변화를 나타낸다. 여기서, 최종수요변화에 따른 각 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다음의 식으로 구할 수 있다.

$$P^K = \begin{bmatrix} \sum_j^n L_{i,j}^{kk} + \sum_j^n L_{i,j}^{kj} \\ \vdots \\ \sum_j^n L_{n,j}^{kk} + \sum_j^n L_{n,j}^{kj} \end{bmatrix} \quad (7)$$

위의 식 (7)을 통해 상대국의 최종수요 증가에 따른 자국의 생산유발효과를 측정하면

표 7 생산유발효과

	1987	1990
한국의 최종수요 증대에 의한 일본의 생산유발효과	3.93	4.15
일본의 최종수요 증대에 의한 한국의 생산유발효과	0.49	0.58

표 8 수입유발계수

	1987	1990
한국의 대일 수입유발 계수	1.90	1.93
일본의 대한 수입유발 계수	0.26	0.35

표 7에 예시된 바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한국이나 일본의 최종수요 증대에 따라 유발되는 상대국의 생산효과는 1987~1990년 기간중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양국의 생산유발효과는 여전히 그 차이가 커서 이것이 대일 무역역조에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3.2.2 수입유발효과

한국 또는 일본에서 최종수요가 한단위 증가했을 때 상대국으로 유발되는 수입의 정도는 다음의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한국의 대일 수입유발 계수 :

$$[A^{JK} \cdot L^{KK} + A^{JK} \cdot L^{JK}] \text{의 행의 합계 (8)}$$

일본의 대한 수입유발 계수 :

$$[A^{KJ} \cdot L^{JK} + A^{KJ} \cdot L^{JJ}] \text{의 행의 합계 (9)}$$

위의 식을 통해 계산된 양국의 수입 유발효과는 표 8에 예시되어 있다.

한국과 일본의 수입유발계수는 1987~1990년 기간중에 다 같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양국간 수입유발계수의 격차는 여전히 벌어져 있어 대일무역적자가 양국간 산업구조에서 파생된 당연한 결과임을 말해 주고 있다.

## 4. 최근의 엔화절상과 대일 무역구조

1995년 들어 급격히 진행되어온 '엔화절상' 및 '달러폭락'현상은 국내경제 및 양국간 무

역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94년 말 동경외환시장에서 99.75엔이었던 미국의 달러화는 '95년 4월 19일에는 79.75 엔까지 폭락하여 2차대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또한 일본 엔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도 4월 19일에 1백 엔당 955.44 원으로 고시되어 95년 들어서만 원화가 17.2% 평가절하되었다.

이와 같은 '엔화절상' 및 '달러폭락'의 주요 원인은 근본적인 치유가 어려운 미국과 일본간의 무역불균형과 미국의 거대한 재정적자 때문이란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어쨌든 엔화절상은 당사국인 일본은 물론 한국경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쳐 산업구조 및 무역구조를 재조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sup>(15)</sup>

### 4.1 엔화절상과 일본경제

엔화절상은 1990년대 이래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본경제의 회복을 더욱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제수지측면에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엔화절상이 오히려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는 J-곡선효과로 나타나겠지만 수출입물량에 영향을 미치는 중기적으로는 수출감소 및 수입확대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한편 무역구조 측면에서 보면, 중장기적으로 구조의 재편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는 고가·고기술품을 해외에서는 중·저가품을 생산하는 양면체제가 더욱 촉진되고 궁극적으로는 '국내 연구·개발-해외생산'체제로 이행할 전망이

다. 이 과정에서 중·저 수준의 부가가치제품이나 중·저 수준의 기술중간재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이 더욱 진전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재, 부품 등 중간재의 해외조달 확대로 중간재 수입비중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sup>(16,17)</sup>

#### 4.2 엔화절상과 일본경제

엔화절상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상품의 대일 경쟁력을 강화시켜 무역수지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우리나라의 가공무역구조를 고려하면 반드시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리라는 보장은 없다.

우선 엔화절상으로 인해서 수출환경은 유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품목별로 보면 해외시장에서 일본과 높은 경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화학제품, 철강, 일반기계, 전기전자 등의 수출이 유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역별로는 중간재를 중심으로 대일수출이 활성화될 전망이며, 대 아세안 수출도 우리 상품으로의 대체수요 증가로 활기를 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우리의 무역구조상 엔화절상으로 인해 대일수입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출증대가 예상되는 일반기계, 전기·전자의 부품 등 수출용 수입을 중심으로 대일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수입선전환 노력에 따라 여타지역으로부터의 수입도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엔화절상은 중장기적으로 자본 및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의 구조 개편을 촉진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일본제품과 대등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반도체, 철강, 조선, 자동차 등은 그 생산기반이 확충될 전망이다. 이미 후발개도국에 비교우위를 상실하고 있는 섬유, 신발 등 일부 경공업제품은 생산기반이 계속 위축될 전망이다.<sup>(18,19)</sup>

#### 4.3 엔화절상과 대일무역역조

엔화절상으로 인한 산업 및 무역구조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수지는 개선될 전망을 보이고 있지만 대일무역수지는 오히려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1995년 1분기중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수지 적자는 35억 6,900만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억 3,200만 달러나 증가된 것이다.

엔화절상으로 인해 대일수출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출증가폭보다 수입증가폭이 더 커서 대일 무역역조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대일 수입 유발적 산업구조에 토대를 둔 우리의 가공무역구조 때문이다. 우리의 주력 수출산업인 전자, 자동차, 선박 등의 주요 부품을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엔화절상으로 인한 수출증가는 곧 대일 수입증가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 및 무역구조의 변화가 선행되지 않고는 대일 무역역조는 더욱더 심화될 수도 있다.

### 5. 맺음말

1980년대 중반 이후 기계류·부품·소재의 국산개발 노력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던 대일 무역수지 적자가 '90년대에 들어 다시 확대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취약성, 우리 상품의 국제경쟁력 약화 등 근본적인 요인에 내수팽창에 따른 수입수요의 증대까지 겹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욱이 대일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95년에 들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엔화절상이 오히려 대일무역역조를 심화시키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산업 및 무역구조 개편을 통해 이를 완화시켜야 될 시점에 와 있다.

엔고시대에 대일 무역역조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첫째, 대일의존도가 높은 기계류 및

소재 부품의 국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대일 수입유발적인 경제체질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산·학·연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국산화품목의 생산업체와 수요업체간 연대체제를 구축함은 물론 장기저리의 국산기계 구입자금 융자규모를 늘리는 등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국제경쟁력을 향상시켜 대일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품질, 기술 등 비가격경쟁력을 제고하여 수출상품을 고급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투자, 합리화 투자 등 생산 구조 고도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여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후발개도국 제품에 대한 비교우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셋째, '90년 이후의 대일 무역역조의 직접적인 원인이 대일 수입증가보다는 대일 수출증가율의 감소 내지 둔화 때문이므로 일본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성화·다양화·고급화되어 가는 일본의 상품수요에 기동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소량 다품종 생산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일본의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와 업무 제휴를 추진하여 배타적인 일본 유통시장에 적극 진출함은 물론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대일 다채널 정보네트웍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최근의 대일 무역역조는 내수 확대라는 경기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엄격한 총수요관리 정책을 통해 물가 및 임금의 안정기반을 공고히 함으로써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수입물량을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한국은행, 1995, "국제수지," p. 51.

(2) 한국은행 조사 제1부, 1992, "최근의 대일 무역적자 확대요인과 향후과제," p. 32.

(3) 한국은행, 1995, "국제수지," pp. 51~58.

(4) 한국은행 조사 제1부, 1992, "최근의 대일 무역적자 확대요인과 향후과제," pp. 1~31.

(5) 관세청, 각년호, "무역통계연보."

(6) 한국은행 조사 제1부, 1992, "최근의 대일 무역적자 확대요인과 향후과제," p. 8.

(7) 한국은행 조사 제1부 국제수지과, 1995, "수출입 단가지수 분석."

(8) 심승진, 사공목, 1992, "한·일 경제의 의존상태와 향후 산업협력 추진 방향," 산업연구원, pp. 29~39.

(9) 박용서, 최장봉, 1981, "한·일 산업구조의 연관분석과 대일 무역역조," 국제경제연구원.

(10) 한국은행, 1987, "산업연관표."

(11) 한국은행, 1990, "산업연관표."

(12) 일본통산성, 1987, "산업연관표."

(13) 일본통산성, 1990, "산업연관표."

(14) IDE, 1976, "International Input-Output Table, Japan-Korea."

(15) 홍승기, 1995, "최근의 '초엔고'현상," 법지사.

(16) 한국은행 조사 제1부, 1993, "엔화강세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방향," pp. ii~iii.

(17) 임천석, 1994, "엔고하에서의 일본기업의 대응상태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8) 한국은행 조사 제1부, 1993, "엔화강세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방향," pp. v~vii.

(19) 김종만, 1993, "일본환율정책의 방향과 우리나라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